

2004 Korea Lilith Fair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린터 10주년 기념행사

파격의 시대,
위대한 여성가수들

여음악



2004. 11. 26. 금. 7시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주최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후원 여성부 문화관광부 SBS MBC KBS

협찬 SAMSUNG 삼성전자 daum MCM SAMSUNG 삼성카드 농협생명 농협화재 교보생명 SK Telecom

contents

1. 한국성폭력상담소 소개
2. 행사를 마련하며
3. 열림터 10살이 되었습니다
4.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 열림터 10주년 축하메세지
6. 축하
7. 여악여락을 준비하며
8. 여악여락 기획의도
9. 여악여락 역사
10. 파격의 연대기를 찾아서

윤복희 : 한글만을 고집해온 예인의 자의식

한영애 : 한국인 아닌 한국인. 무당에서 세계종교의 샤먼으로.

이상은 : 신비로운, 진지한 다국적(=무국적) 아티스트로의 확장

윤미래 : 한국 알앤비 여성 가수의 든든한 미래, 한국의 로린 힐.

지현 :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 그녀의 정치

네스티요나(Nastyona) : 다채로운 장르를 음울함으로 봉합하다.

11. 함께 만든 이들

12.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해요.

여樂
여樂

Music Festival Program

(PM 7:00~10:00)

1 intro 여악여락

2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

3 최고의인디밴드 네스티요나

4 파격의시대를 열다 윤복희

5 힙합의여전사 윤미래

6 음악감독이자 음유시인 이상은

7 소리의미녀 한영애

8 다시, 여악여락을 꿈꾸며